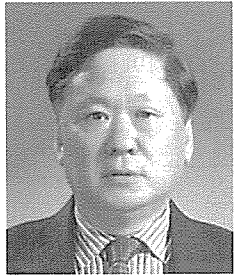


미국 대학교의 종신직교수제도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의 종신직교수제도는 일부 정치인이나 대학이사들로부터 폐지압력을 받고 있다. 미네소타대학교서도 이사회에서 종신직교수제 폐지를 들고 나왔으나 총장이 사임하겠다고 맞서서 겨우 철회시켰다. 미국의 종신직교수제는 그 수여기준을 높이고 엄선하면서 종신직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심사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학문추구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미국을 모든 학문분야에서 최상위로 격상 유지시켜 주고 있다.

미국 대학교의 종신직 교수제도 (tenure system)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인 의도에서 설익은 개선안을 내놓는 정치가들이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주립 대학 이사회의 이사들이다. 유명 사립 대학교들은 비교적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아서 다행이지만 학문 세계를 잘 이해못하는 외부세상 사람들로 부터 주립대학교들이 계속 공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유명한 예는 얼마전 미네소타대학교의 경우다. 주립대학 이사회가 종신직 교수제도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까지 했는데 총장이 사임하겠다고 맞서 위협하자 겨우 이사회가 그 문제를 철회했고 그 제도가 계속 남게 되었다. 위스콘신 주 밀워키시의 어떤 보수주의 경향의 정책연구소는 종신직 교수제도 때문에 매년 8천9백만달러를 주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하면서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종신직 교수제도는 간단하게 없앨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그런 경우 우수한 교수들의 타주로의 집단적인 이주(massive exodus)가 생겨 위스콘신주 고등교육기관의 심각한 질적인 쇠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



姜 慶 植
(미 브라운대학 물리학 교수)

다. 종신직 교수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교수들에게 교육책임을 태만히 여기는 자유를 주지 않은가 하는 이유를 대고 질문을 한다.

종신직 취득후도 계속 평가

대학교들은 이런 질문이 무엇이 위대한 학문의 전당을 만들어주는지 잘 모르거나 잘못 인식된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일축해 버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특히 유명 사립대학교에서처럼 종신 교수직 수여기준을 높이고 엄선을 하면서 종신직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심사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종신직 교수제도는 고등학문 전당에서의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원칙과 관계된다. 학문의 자유는 종신직

을 받은 교수나 안받은 교수가 다같이 보장받지만 종신직 교수의 경우는 학문 자유의 배반을 입증하는 타당한 이유와 적절한 합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대학교가 해고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를 증명하는 책임도 대학당국측에 있는 것이다. 종신 교수직 수여는 교수 개인의 전문적인 탁월성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학사계획에서 예측되는 필요사항까지 고려해서 주어지게 마련이다. 전문적인 탁월성은 자기의 전문분야에서의 탁월한 학문업적성취, 그 분야에 끼친 영향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전문학회를 통한 그 분야에서의 명망과 장래성, 우수한 교수자질, 그리고 대학교내에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 및 대학교 내부운영에 대한 위원회를 통한 협조공헌 그리고 공익사회봉사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브라운대학교의 경우는 1764년 영국 식민지주 로드 아일랜드 대학으로 출발할때의 학칙이 미국 독립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때 그때 수정 개량되었는데 1983년 전체 교수회의에서 채택된 "학문의 자유"는 다음과 같다. "학문의 자유는 대학교에서의 교육의 기능과 학문의 추구를 위하여서는 불가결하다.

자격미달 철저히 배제

1. 그러므로 브라운대학교는 학문과 자유스러운 의견의 교환에 대한 그의 역사적인 공약을 명심하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다 똑같이 그들의 가르침과 배움과 연구에 완전한 자유를 향유할 것을 다짐한다.
2. 브라운 대학교는 또한 교수와 학생들이 종교적 신앙, 언론, 출판, 교제와 집회, 대학교 인팍에서의 정치적 행

동, 권력자나 대중 또는 대학교에 청원하거나 자기들이 선택한 연사를 대학교 내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의 자유를 가지며 미국시민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어떠한 서약을 할 것을 요구받지 않아야 할 것을 다짐한다”

이어서 “교수채용, 심사, 승진 그리고 종신직”장에 가서는 종신직심사를 위하여 종신직이 아닌 교수들이 가지는 권리, 해당학과에서 종신직이 아닌 교수의 봉직 6년째 되는 해의 11월1일 이전에 위원회(tenure committee)를 조직하여 심사평가에 적용될 방법을 의논해서 자료수집 및 외부학자들의 평가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장장 여섯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다. 후보자의 학문업적을 잘 알고 있는 외부석학(적어도 8명)명단과 그들로부터 받은 평가추천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석학이 외부심사위원으로 택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서, 후보자의 가르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와 그의 가르친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후보자의 대학교 또는 학과내의 위원회나 행사를 통한 공적기록, 그리고 후보자의 종신직 교수 승진문제에 대한 학과내에서의 통신과 선배 종신직 교수들의 회의록 등등 수많은 서류들이다.

종신직 교수제도는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선택된 사람들이 행여라도 그들의 사고나 학문적인 결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보복이나 압력 또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엄격한 초기 임명과 이처럼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서 자격미달의 엉터리 학자가 종신직 교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종신직 교수제도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자유로운 문제제기야말로 진리의 이

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방법이며 질문하고픈 마음의 습관을 길러준다. 종신직 보장이 있어야만 그러한 습관을 배양하고 그런 문의를 가지있게 할 수 있는 대학문화를 보장할 수 있다. 개인의 직장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서 생기는 비판적 문제제기의 습관이야말로 전수된 지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생각을 발생하는 직업에서는 특별히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 두 행위가 그 본질적 생태때문에 현존하는 생각을 자극시킬 수도 있어서, 가르치는 의무를 대만히 여길지도 모른다느니 또는 의미없고 쓸데 없는 연구라느니 하는 말로 종신직 교수제도를 공격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정치가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대학 이사회의 사업가인 이사들에게 대학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 연구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허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라고 한다면, 자유스러운 사고와 학문추구에는 엄청난 손실이 생길게 분명하다. 이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토의과정에서 보통 기억 못하는 것은 극소수의 학자가 오랜 학문여정을 거쳐서 종신직 교수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학교수를 지망하는 모든 대학원생중의 일부만이 다년간의 시험을 거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박사를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운 좋은 몇명만이 올라갈 수 있는 조교수(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6년이란 세월을 봉사한 끝에 그들의 가르친 행적, 연구실적과 장래성, 학문전망, 대학내의 봉사 등등의 갖가지 부분을 대학내의 선배 교수들, 밖의 같은 전문분야 석학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가받으며, 교수와 행정위원회의 여러 계급의 검증을 거쳐서 겨우 종신직 교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신직 교수가 된 경우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세에 가까운 나이를 먹었고 여러 해를 통하여 대학교에 봉사했고 자기 전문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후 위에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학문과 정신문화 선도 역할

종신직 교수제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학교수들 중에 소위 “죽은나무(deadwood)”가 많다고 입증할 수도 없는 숫자를 들어 말하지만 그들이 있고 있는 것은 어떤 사회에도 죽은 나무는 많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계에서는 상당한 숫자의 크고 작은 실패가 생겨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고 있다. 엄청난 경우에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주주들이나 납세자들에게 안겨주지만 이 경우 흔히 관계된 회사의 회장은 오히려 수백만달러의 돈을 황금의 작별약수(golden handshakes)로 받고서 사임해 나가는 것이다. 종신 교수직으로 승진된 후에 업적이 부진하여 보통보다 많지도 않은 봉급수준에 동결된 봉급을 받고 있는 교수들의 보수는 그런것들에 비교하면 얼굴을 창백하게 할 정도로 만드는 소액인 것이라고 대학들은 반격하고 있다.

미국 대학교의 종신직교수제도는 학문추구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미국을 모든 학문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로 격상 유지시켜 준다. 대학에 대한 공헌을 쌓고 인정받아, 까다롭고 엄격한 여러 계층의 심사를 통과하여 종신직 교수가 되고 주기적인 재심사를 거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미국의 학문과 정신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일류 인재(crème de la crème) 들인 것이다. ㉓